창사 61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 TV
▶m.kjdaily.tv ▶m.kjdaily.com 광고문의 062)650-2070

제7588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19년 12월 6일 금요일 (음력 11월 10일)

서울대 의예 408점 전남대 의예 398점

광주시교육청·진학부장협의회 수능 실채점 분석결과

GIST 387, 광주교대 380 전남대 영어교육 378 조선대 영어교육 351점 이상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과 진학부장협의회가 5일 2020학년도 수능 실채점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7면

분석 결과, 영역별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국어 영역의 경우 131점, 수학 영역의 경우 가형 128점, 나형 135점으로 나타났다. 1등급 기준 원점수는 국어 91점, 수학 가형 92점, 수학 나형 84점이며, 영어영역의 경우 1등급 비율은 작년(5.3%)에 비해 2% 이상 상승한 7.43%였다.

사회탐구 영역의 경우 과목에 따라 1등급 구분 표준점수가 62점-68점,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과목에 따라 64점-68점으로 분석됐다.

서울대는 지원 자격을 충족한 학생을 기준으로, 국·수·탐 600점 표준점수 기준 인문계열은 407점 이상, 자연계는 389점(서로 다른 과탐Ⅰ·Ⅱ)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할 전망이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국·수·탐 600점 표준점수 기준으로 인문계열은 400점 내외, 자연계열은 388점 내외이며, 상위권 학과의 경우 인문계열은 408점 내외, 자연계열은 395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계열 극상위권인 의예과의 경우 서울대 408점, 연세대 408점, 고려대 404점, 성균관대 405점, 한양대 403점, 중앙대 402점, 경희대 402점, 이화여대 402점 등으로 지원선이 형성될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대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378점, 국어교육과 375점, 경영학부 370점, 인문계열 352점 내외로 예상된다. 자연계열은 의예과 398점, 치의학과 학석사통합과정 395점, 수의예과 387점, 전기공학과 378점, 수학교육과 366점, 컴퓨터정보통신학과 353점 등이 지원 가능선이다.

조선대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351점, 국어교육과 346점, 경영학부 315점, 스페인어과 307점, 인문계열 하위권 모집단위는 300점대 내외에서 지원 가능하다. 자연계열은 의예과 396점, 치의예과 392점, 간호학과 356점, 수학교육과 345점, 기계공학과 323점 등이다.

광주교대는 표준점수 380점에 영어 1등급 정도에서,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수학 가형 응시자 기준 387점 정도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권범 기자

오늘 '추위 절정'…주말 아침 영하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겨울 추위를 몰고 오면서 6일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다.

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6일 아침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2도, 낮 기온은 2도에서 6도 분포를 보이겠다.

7일 아침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 낮 기온 7도에서 10도 되겠으며, 8일은 아침기온이 영하 1도, 낮 기온이 9도로 예상된다.

6일 아침은 전날보다 3-5도 더 기온이 하강하겠으며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러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겠다.

기상청은 6일 아침 서해안에 바람이 32-47㎞/h(9-13㎧)로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30-45㎞/h(8-12㎧)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해상에서는 서해남부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표(5일 오후 6시)된 가운데 6일 아침까지 바람이 35-60㎞/h(10-16㎧)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0-4.0m로 매우 높게 일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주말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유지하겠으며, 6일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건강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광주 도심 찾은 '겨울 진객' 큰 고니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5일 오후 도심근교 광주 광산구 산월동 영산강 산월2 방수제 인근에서 겨울나기를 위해 찾아온 큰 고니(천연기념물 제201호) 무리가 한가롭게 노닐며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 영산강(국가하천)은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비오리 청둥오리 등 겨울철새들이 찾아와 월동한다. /김애리 기자

보안사 "5·18 때 화염방사기 30대 사용"

최경환, 5·18 관련 보안사 문서 2천321건 공개

편의공작대·민간인 정보원·무장헬기 출동 적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화염방사기 30대가 사용됐다는 사실이 국군 보안사 문서에서 확인됐다. '폭도들이 선제공격 시 무차별 사격하라'는 지시는 물론,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찬탈을 위해 5·18을 왜곡, 대응·관리했다는 내용까지 다수가 담겼다. ▶관련기사 3면

앞서 보안사 사진첩(17권 중 13권 1천769장)이 공개된데 이은 것으로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명예 회복에 활용될 상당한 자료로 평가된다.

대안신당 최경환(광주 북을)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보안사 생산 문건 목록 2천321건과 일부 문건의 내용을 공개했다.

주요 목록은 5·18 당시 보안사가 수집한 상황일지 전문과 군 작전일지, 전남도경 상황일지, 5·18 직후 군의 작전 상황 전반과 문제점, 추후 대책 등이 담긴 '광주사태 분석' 등이다.

1988년 국회 5·18 청문회 대비용 전두환 관련 질문 응답 문건, 1995년 5·18 특별법 제정에 대비한 동향, 매년 5·18에 즈음해 보안사 및 안기부 등이 파악한 광주전남 동향,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물 동정, 5·18 단체, 정치계, 종교계, 언론계, 노동계, 재야, 군 동향 파악 문건 등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이 가운데 '광주사태 분석'과 '광주사태 상황일지' 등 일부 문건에 대해서는 전문도 확보했다.

특히 '광주사태 분석(3급 기밀해제, 문서목록에는 2급이지만 원본은 3급임)'에는 '편의공작대'로 불리는 선무공작대 투입·운영, 민간인 45명 정보요원 활용, 화염방사기 30대 사용 등의 사실과 유사시 항공 자원을 기동타격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보안사가 감청과 민간 정보요원, 편의공작대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로 작성된 '광주사태 상황일지'에는 5·18 당시 상황이 시간대별로 상세히 담겨있다.

여기에는 '무장헬기 해남 현지 급파', '폭도들이 선제공격 시 무차별 사격하라'는 31사단장 명의의 지시 등도 포함됐다. 5·18 당시 전국 동향과 서울 관내 고교의 교련용 무기를 회수했다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헬기 사격 진압 의혹에 대한 보안사의 첩보수집 문건과 전 전 대통령의 관련 반응, 5·18 특별법 제정 대응, 5·18 단체 와해 유도 전략 문건과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5·18 구묘역) 이전 대책에 대한 '무등사업 계획 및 비둘기사업' 문건도 드러났다.

최 의원은 "가해자인 신군부의 정권찬탈 과정 및 정권찬탈 이후 전두환, 노태우 등 5공, 6공에 걸쳐서 이뤄진 5·18 왜곡, 조작, 공작 관리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해당 자료들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5·18 진상 규명, 피해자 명예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전문가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문서 파기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기획-한·러 수교 30주년 '러시아는 변신중' ▶5면